

## 윤리적 소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생태요소를 도입한 협동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권나현\*

본 연구는 생태요소를 도입한 협동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인근 성미산 주변에서 자생한 성미산 마을 안에 있는 협동주택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 거주자를 대상으로 접촉 가능한 거주자, 세 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협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협동주택을 어떤 형태로든 구매한 것이고, 협동주택을 구매한 것은 윤리적 소비를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협동마을 거주자가 경험한 윤리적 소비와 심리적 경험에 대한 연구문제의 현상학적 탐구를 위해 실시한 심층 면접은 녹음하였고, 녹음을 전사(transcript)한 뒤에,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있는 자료를 도출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동일 의미 군으로 묶어 범주화하는 콜라이찌(Paul Colaizzi)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개 범주를 도출하였는데, 이들 범주는 행복한 경험, 일상의 즐거움, 편리함, 소통의 느낌,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 위안/치유의 느낌, 자연과 친한 느낌, 존중받는 느낌, 나눔의 느낌 그리고 구속의 느낌이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경험을 생태요소를 도입한 협동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상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10가지 범주를 도출한데 의의가 있다. 대상자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구 대상자가 3명으로 제한된 것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또한 타당화 과정을 2, 3회기의 면접에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참여자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여, 1회기를 하는 대신 면접시간을 길게 하여 각 피면

---

\* Choate Rosemary Hall, 11th Student

접자에게 구술 내용에 대해 면접자가 요약정리하고, 동의 및 부연설명의 과정으로 대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가자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과 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었으나 한 건물로 이루어진 협동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협동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여 반복 연구를 제안한다.

## Ⅰ 주제어 Ⅰ

윤리적 소비, 협동주택, 공정무역, 현상학연구

### Ⅰ. 서론

윤리적 소비가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윤리적 소비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윤리적 소비라는 개념은 초콜릿, 설탕, 축구공 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친숙해지기 시작했다. 제3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악덕 기업의 불공정무역을 소비자가 인식하게 되면서부터다.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합리적인 소비에서 자신의 가치를 소비생활에서도 실현하는 가치 중심 소비가 일어나고 있듯이(권미정, 2012), 윤리적 소비도 처음에는 단순 소비 품목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윤리적 소비의 관심과 대상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홍연금·송인숙(2010)은 소비행동 전 영역 모두를 윤리적 소비라고 규정하였다. 윤리적 소비태도 척도를 개발한 신호진(2012)도 윤리적 소비를 거시적인 개념의 소비로 보았다. 즉 개인의 윤리적 신념을 토대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활동으로 다양한 환경까지 고려하는 것이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다. 개인의 윤리적 가치가 개

인이 소비하는 모든 영역에 반영된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이다.

인간이 구매하는 대상 중에서 주생활 영역인 주택은 비용단위가 매우 높다. 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한 번 구매하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평생을 살기도 한다. 주택은 에너지 사용 방식에 따라서 윤리적 소비의 중요한 부분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국가 에너지 사용의 1/4에서 1/3 정도를 주택과 같은 건물에서 사용한다(신지옥, 2008). 또한 거주자는 주택이라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물리적 적응과 화학적 반응을 해야 하므로 다른 윤리적 소비의 구매대상과 비교하여 그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주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주택이라는 용어를 넘어서 제로에너지 주택, 심지어는 플러스 에너지 주택까지 등장했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가정에서 쓰는 만큼의 에너지를 태양에너지 집열판을 이용해 직접 발전하여 쓰는 것이다. 초기 비용은 일반 주택에 비해 더 들어가지만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며,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고 지속가능하다. 플러스 에너지 주택이란 가정에서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주택이다(박상용, 2012). 가정에서 쓰고 남는 에너지는 외부에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에너지 주택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를 하는 셈이다. 이러한 생태요소를 도입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협동하여 집을 짓는 보다 적극적인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

윤리적 소비의 대상과 규모는 식생활, 의생활 관련 제품을 넘어서 주생활 환경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의 구매가 윤리적 소비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명백하다. 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나라와 미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협동주택으로 먼저 시작했다(한민정, 2006), 우리나라에서는 더 발전하여 협동조합의 형태로 자신들이 살 집을 직접 건축하고, 육아 활동 및 학교 교육까지 협동하는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이재람,

2012).

생태요소가 강조된 협동주택의 예로는 미국 뉴욕 주 이타카(Ithaca) 지역의 이타카 에코빌리지(Eco village)가 대표적이다. 계획에서 집을 짓기까지 13년이나 걸려서 이룬 이곳은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여 햇빛에너지로 가전제품 전기수요까지 충당하고 있다. 지령이를 이용하여 척박한 땅을 기름지게 바꿔 유기농법으로 경작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모듈별 활동을 통해 협동주택의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 주변에 형성된 성미산 마을이라는 한 공동체마을에서 협동주택, 소행주가 탄생하였다.

이런 협동주택을 구매하여 살고 있는 것은 윤리적 소비라고 말하는 “개별적,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행동”(홍연금·송인숙, 2010)이며, iCOOP생협에서 윤리적 소비의 세 가지 핵심가치라고 정의한 사람과 노동, 식품안전과 함께 농업과 환경의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윤리적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데, 주택을 윤리적 소비의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다만 협동마을인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에 대하여 다른 관심사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아졌다. 유창복(2009)은 도시 속 마을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로 보았고, 최운진(2012)은 마을 아카이빙 체계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으로(한상훈, 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으로 연구한 이들도 있다(이홍택, 2012).

윤리적 소비의 가치 기준으로 의생활, 식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듯, 주생활에 필요한 주택도 윤리적 가치에 준거한 소비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택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가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윤리적 소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양적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양적 연구만으로는 이들의 윤리적 소비 행위에 대한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밝히기는 어렵다.

질적 연구 방법에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Cresswell, 2010), 그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는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를 포함하여 구조, 즉 현상의 본질을 밝혀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윤리적 소비 경험에 대한 의미를 연구할 때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대상자를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태요소를 도입한 협동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 경험은 무엇인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 1.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협동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경험한 윤리적 소비에 대하여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진술한 의미 있는 내용을 원 자료로 하여 주관적인 윤리적 소비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협동마을 거주자의 심리적 경험은 무엇인가?

## 2. 연구 방법

협동마을 거주자가 경험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콜라이찌(Paul Colaizzi)의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콜라이찌는 한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을 의미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탐구하여 사실적으로 기술해 낼 수 있는 연구 절차의 각 단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 협동주택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 거주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에 동의하는 3명을 대상으로 한다.

### 2) 연구절차

대상자별로 1~3차의 기간에 걸쳐 30분~2시간씩 심층 면담하고 진술 내용을 기록한다.

### 3) 자료분석

콜라이찌의 연구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① 원 자료에 대한 느낌을 획득하고 감각을 얻어 내기 위해 연구 대상의 모든 진술들을 읽는다.

② 의미 있는 진술들을 찾아내기 위해 각각의 원 자료로 돌아가서 연구될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술이나 혹은 문장들을 발췌한다. 여러 원 자료들은 같은 진술들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중복되는 내용들은 제거한다.

③ 연구 대상자의 말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찾는다.

④ 위의 단계를 반복하면서 주제군들로 명확하게 표현될 의미들의 집합을 조직한다.

⑤ 모든 결과들은 연구될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철저한 기술로 통합한다.

⑥ 마지막 타당화의 단계로 각각의 연구 대상에게로 돌아가서 일회의

면담이나 혹은 여러 회기의 면담 속에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이 대상자의 경험에서 생략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윤리적 소비

윤리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표준국어대사전, 2000), 개인이 행동을 이끄는 도덕적 원리 혹은 기준으로 정의되며 (Munch and Vitell, 1992), 인지적인 면과 인성적인 면 또는 이 둘을 합하여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다(홍은실·신소연, 2010). 한겨레 경제연구소 (2009)는 윤리적 소비를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에 근거해 내리는 의식적인 소비선택으로서 반드시 당장 자신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이고 이웃을 고려하며 자연환경까지 생각하는 관점에서 내리는 구매선택”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용자들이 용어를 정의하는 위키피디아(2012)에 의하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할 때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것, 또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민텔(Mintel International Group)은 윤리적 이슈의 범위를 압제적 정부, 인권, 노동관계, 국가 권리, 환경, 무책임한 마케팅, 공정무역, 원자력, 무기, 동물 테스트, 기업적 농업과 정치적 기여 등 세부 영역으로 설정했다 (Mintel International Group, 1994). 하퍼(Gemma Harper)와 마카투니(Aikaterini Makatouni)는 “환경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라고 하였다(Harper and Makatouni, 2002). 김재현(2009)은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동시에 판매금액의 일부를 환경,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혹은 공정무역을 통해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박지희·김유진(2010)은 윤리적 소비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환경, 동물을 배려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에도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홍연금·송인숙(2010)은 윤리적 소비란 개별적, 도덕적인 신념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이쿱(iCOOP)생협에서는 사람과 노동, 식품안전과 함께 농업과 환경을 윤리적 소비의 세 가지 핵심가치에 포함시키고 있다.

모든 개인은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희망하는 '시민'이기도 하다. 따라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와 계층을 중심으로 지구환경과 인권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특별한 현상이 아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선진국 소비자들이 윤리적인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제3세계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안심과 만족을 얻고 있기도 하다(홍연금·송인숙, 2010).

본 연구에서는 협동주택을 구매한 행위를 윤리적 소비로 보았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윤리적 소비의 핵심어인 도덕적 믿음, 자연환경 고려, 윤리적인 가치 판단, 올바른 선택, 인간, 동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 등에 협동주택의 구매가 부합되기 때문이다.

## 2. 협동주택

협동주택은 나라와 학자에 따라 코하우징(Cohousing) 또는 코우아퍼레이티브 하우스링(Cooperative Housing)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임윤

회, 2003). 맥카멘트(Kathryn McCamant)와 듀렛(Charles Durrett)에 의하면 협동주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협동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 즉 사회적, 경제적, 실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주형태라 정의할 수 있다(McCamant and Durrett, 1994). 여러 채의 개별 주택들이 모여 공동생활 시설(Common House)과 공용공간을 공유하는 형태를 가지며, 이를 통해 현대적 삶에서 필요로 하는 프라이버시와 공동생활의 이점을 모두 수용하는 생활방식이다.

협동주택의 사상적 기원은 플라톤의 정의에 의해 다스리는 이상국가론인 「공화국」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의 책은 토마스 모어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다(최정신, 2006). 토마스 모어는 1506년 「유토피아Utopia」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을 둔 이상적 공동체를 제안했으며 코하우징과 유사한 ‘공동식당’과 ‘공동 여가생활 공간’의 개념을 등장시켰다. 최근의 협동주택은 1964년 덴마크의 건축가 화이어(Jan Gudmand Høyer)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의 형태, 즉 그들의 자녀를 가까이에 두고 세탁, 식사준비, 탁아 등과 같은 일상적인 가사를 이웃과 협력할 수 있는 주거형태를 생각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McCamant and Durrett, 1994). 이후 협동주택은 북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주택은 성미산 마을의 소형 공동주택인 소행주 1호를 들 수 있다. 성미산 마을은 해발 66m의 작은 동네 뒷동산을 품고 형성된 마을로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행정구역이 아닌, 성미산을 중심으로 둘러선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등에 거주하는 1천여 명의 주민들이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룬 커뮤니티다. 1994년,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대안학교, 마을 기업, 마을 카페, 생협 등을 만들며 성공한 도시공동체로 평가 받으며, 마을 공동체의 롤 모델로 자리 잡았다. 성미산 마을 주민들 중에서 아홉 가구가 6층짜리 집을 지어

2011년 4월에 입주했다. 그렇게 탄생한 건물이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지은 협동주택 ‘소행주 1호’다. 작은 평수로도 풍요로운 주거환경을 지향하며 수요자가 직접 참여하여 설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3호 건축 중이며, 4호 준비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며 8개 지역에서 준비 모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협동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로 보고 성미산 마을 협동주택인 소행주 1호에 사는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거주를 위해서는 매매나 전세의 형태로 구매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3. 생태요소

생태란 유기체가 생존을 유지해 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태요소를 반영한 주택은 그동안 친환경 주택법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 건축물로 볼 수 있다. 2013년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친환경 주택이란 용어 대신에 녹색건축이란 용어로 변경하였으며(국토해양부, 환경부, 2013) 기준에 합당한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목표로 인간과 자연이 서로 친화하며 공생할 수 있도록 계획된 건축물의 입지, 자재선정 및 시공,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의 전 생애(Life Cycle)를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소형건축(단독주택과 20가구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의 건축물에서 녹색건축인증의 심사분야는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염, 재료 및 자원, 물순환관리, 유지관리, 생

태환경, 실내환경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생태환경은 대지의 녹지공간 조성의 범주로 생태면적률이 기준이 된다.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면적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하는 것이다.

녹지공간 조성의 공간 유형과 생태면적률에 따른 녹색건축인증급수는 다음과 같다(표 1, 2).

본 연구의 대상인 성미산 마을 소행주 1호 건축물의 경우 위와 같은 공간유형의 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빈 공간마다 나무를 심었고, 옥상 전체를 녹화하여 인공지반 녹지공간을 확보하였다. 또 녹색건축 인증 항목에 있는 유지관리 측면에 있어서 다른 건축물에 비해 단열시공을 철저히 하여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점을 들어, 생태요소를 도입했다고 보았다.

〈표 1〉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생태 면적률의 세부산출기준

공간유형	가중치	공간유형 설명 및 시공사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3 수공간 (차수)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geq 90\text{cm}$	0.7	토심이 90cm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geq 20\text{cm}$	0.6	토심이 20cm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6 인공지반녹지 $< 90\text{cm}$	0.5	토심이 90cm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text{cm}$	0.5	토심이 20cm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8 부분포장	0.5	50% 이상의 식재면적을 가지는 포장면
9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10 전면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11 틈새 투수포장	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12 저류 침투 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13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자료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5조 관련 별표 1

〈표 2〉 녹색건축인증 급수

구분	생태면적률	가중치
1급	생태면적률 40% 이상	1.0
2급	생태면적률 35% 이상 ~ 40% 미만	0.75
3급	생태면적률 30% 이상 ~ 35% 미만	0.5
4급	생태면적률 25% 이상 ~ 30% 미만	0.25

자료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 5조 관련 별표 1

#### 4. 현상학적 연구

질적 연구는 인간의 생생한 경험을 추상적 언어로 표현하고 인간 삶의 경험과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함이다. 크게 다섯 가지 전통으로 나누는데, 첫째, 개인의 삶을 탐구하는 전기, 둘째,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에 근거하여 이론을 개발하는 근거이론, 셋째, 문화적, 사회적 집단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문화기술지, 넷째, 단일 사례 혹은 복합저진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 그리고 다섯째, 현상에 대한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다(Cresswell, 2005).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의 의미를 기술한다.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대상자의 주관적인 경험으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 실증주의의 양적 연구방법은 적합하지 않다(이철수 외, 2009). 현상학의 역사는 독일 수학자 후설(Edmund Husserl)과 함께 시작된다. 실존주의를 기반으로 한 현상학은 주관과 객관이 구분되기 이전의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경험 현상에 판단을 중지하고 괄호치기(blocking)를 하는 것이다. 현상학은 의식 안에서 경험적 현상을 종합하는 것이다(남경태, 2007). 그러므로 현상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본질 또는 경험의 중심적인 기저 의미를 탐색한다. 여기서 경험은 외향적인 모습과 기억, 이미지, 의미에 기반한 내향적인 의식 모두를 포함한다. 연구대상자,

즉 참여자가 현상을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드러내는지를 보는 것,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현상을 참여자가 경험한 대로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편견을 제쳐 두어야 한다.

윤리적 소비와 관련하여 김재현(2009)은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소비자의 특성차원 중 인간관계 중시, 윤리적 제품 가치부여,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자아이미지 추구, 박애주의 성향 등의 차원은 특히 인간을 중시하는 등의 요소가 윤리적 소비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심층적인 요인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윤리적 소비의 경험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요소를 반영한 협동주택을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윤리적 소비의 경험에 대하여 현상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콜라찌의 연구방법론을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2013년 8월 8일부터 8월 23일까지 마포구 성산동 249-6번지에 소재하는 협동주택인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1호에 사는 주민 세 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연구계획 당시에는 5명을 계획하였으나 면접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여 세 명으로 제한되었다. 피면접자는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연령은 각각 52세, 41세, 그리고 38세였다. 직업은 각각 협동주택 코디네이터, 작가이자 방송인, 그리고 마을운동가였다. 면접시간은 각각 1시간에서 2시간이었다. 두 명은 소행주의 공동방(common room)인 씨실에서 만났고, 한 명은 성미산 마을 주민들이 출

자를 하여 운영하는 소행주 근처의 작은나무 카페에서 진행하였다.

타당화를 위해 다시 약속을 잡기 어려웠으므로 면접이 끝난 뒤에 면접자가 피면접자의 말을 재인용하거나 요약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피면접자는 자신의 말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고, 동의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추임새를 넣기도 했다. 면접 전에 약속을 잡기까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래포(rapport)형성 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여겼으나, 막상 대면하여 면접을 할 때는 열린 태도로 거리낌 없이 속내까지 편하게 면접에 임했다.

면접하기 전에 면접의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녹음에 동의를 구하고, 스마트 폰(엘지 옵티머스)의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녹음한 것은 피면접자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적는 방법인 전사(transcription)를 컴퓨터 문서 프로그램으로 한 뒤에 반복하여 다섯 번 읽었다. 읽으면서 의미 있는 자료에 밑줄을 그었다. 의미 있는 자료는 따로 발췌하되, 이 과정에서 반복되고 중복되는 의미는 제거하였으며, 조금 다른 의미의 문장은 구별하여 기록하였다. 각 문장은 비슷한 의미로 묶어 범주화한 결과 모두 10개의 범주로 묶을 수 있었고, 그 범주는 다음과 같다.

〈표 3〉 협동주택 구매 경험의 의미 범주화

범주	내용
1	행복한 경험
2	일상의 즐거움
3	편리함
4	소통의 느낌
5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
6	위안/치유의 느낌
7	자연과 친한 느낌
8	존중받는 느낌
9	니눔의 느낌
10	구속의 느낌

각 범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범주 1. 행복한 경험

*세상에 둘도 없는 나만의 집에 살아 행복하다.  
내가 설계하고 내 의지대로 만든 집이라 좋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똑같은 집이 아니라 나한테 맞춘 집이어서  
좋다.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설계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 전부터 내가 설  
계한 소형 공동주택에 살고 싶었다. 꿈에 그리던 곳에 살게 되어  
기쁘다.  
내 개성에 맞추어 직접 디자인(숨는 방)해서 늘 위안이 된다.  
구매 과정 자체가 행복한 경험이다.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똑같은 집이 아니고 내 개성을 살린  
집이어서 행복하다.*

첫째 범주는 행복한 경험이다. 행복은 피면접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중 하나였을 정도로 강조된 의미였다. 행복이란 단어를 언급할 때 그들은 진지하면서도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개성이 무시된 똑같은 집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한 자신만의 집을 만드는 과정부터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험이다 행복이라고 말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자신만의 집이라는 것에 행복을 느낀다고 했고, 자신의 의지대로 설계하고 만들어 행복하다고 했다.

오래 전부터 협동주택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싶었으나 호응하는 이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여기 지금 사는 곳에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어서 무척 다행으로 여겼다. 한 참여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데 숨어있듯이 지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무척

행복하다고 했다.

## 범주 2. 일상의 즐거움

녹화한 옥상에 올라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좋다.

공동방(common room)인 씨실에서 이웃과 어울리는 게 기쁘다.

(술 마시며 어울리는 게 좋다. 매일 번개 모임이 일어나기도 한다. 공동의 방인 씨실이 있기 때문에 원할 때 아무 때나 어울릴 수 있다. 남자 둘이 서로 사귀느냐고 농담을 할 정도로 거의 매일 만나 어울린다. 공동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언제나 합류할 수 있다. 이웃과 어울리는 게 즐겁다.)

포트럭 파티(potluck party)처럼 음식을 조금씩 가져와 함께 나눠 먹으니 매일 잔치하는 것처럼 좋다.

이웃과 친해서 여행도 일정을 맞춰 같이 간다. 무척 재미있고 정도 돈독해진다.

재밌어서 집에 일찍 들어오게 된다.

좋은 이웃과 협동하며 사는 게 즐겁다.

어느 집에 무언가 생기면 정보기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원하는 집을 확인하고 나누어 주는 즐거움이 있다.

둘째 범주는 일상의 즐거움이다. 즐거움은 첫째 범주인 행복과는 조금 다른 것인데, 행복이 정신적인 것에 치중한다면 즐거움은 정신과 신체의 총체적인 만족이다(이나미, 2013). 좋은 이웃을 강조하였는데 참가자 전원이 삶을 인생 전체를 함께 엮어 가면서 매우 즐겁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다. 특히 공동의 공간으로 마련한 씨실이 그 중심 공간이었다. 밤에 퇴근할 때 씨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는 게 그리 즐거울 수가 없단다. 집에 일찍 들어오고 싶다고 했다. 오늘은 또 무슨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로 하루를 맞이한다고 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으면 인공으로 녹화해 놓은 옥상에 올라가 고기를 구워 먹으며 어울린단다. 심지어 여행 일정을 같이 짜기도 한다. 이번 여름에도 몇 가족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단다. 협동주택에서도 자주 만나고, 여행까지 같이 가지만 지겹지 않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몸이 힘들거나 쉬고 싶을 때는 문을 닫아두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누어 먹는 것도 큰 즐거움이라고 했다. 음식을 각자 한 가지만 갖고 공동 방에 가면 금세 진수성찬이 된다. 여럿이 어울려 밥을 먹으면 훨씬 즐겁다고 했다. 또 어느 집에 먹을 게 많이 생기면 그걸 나누어 먹는 게 즐겁다고 했다. 일상이 흥분과 기대감으로 충만하다고 했다.

### 범주 3. 편리함

*요리하며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하다.*

*저녁에 공동방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을 때는 반찬 하나만 가져가도 여럿이 모여 진수성찬이 된다. 정말 편하고 좋다.*

*공동으로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엄마가 없어도 간식과 식사를 챙겨줄 수 있어 일을 하는 엄마한테 좋다.*

셋째 범주는 편리함이다. 이것은 즐거움과 이유는 같지만 의미가 달라서 경험의 의미로 볼 때 다른 범주로 분류하였다. 포트럭 파티를 하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편하기도 하다. 특히 어린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일을 하는 엄마인 경우에 아이가 집에 올 때 보살필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무척 힘이 드는데, 협동주택에서 공동으로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아이들이 오는 시간이 제각각이어도 오는 대로 도우미가 챙겨 주고, 아이들끼리 또 챙겨주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놀기도 하니가 협동주택에 사는 것이 편리하면서도 마음이 놓인다.

#### 범주 4. 소통의 느낌

*무슨 일이 있으면 온라인 주민 수다방에서 의견을 나눈다.*

*즐거운 일도, 해결해야하는 문제도 서로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이웃이라고 해서 이웃의 어린 아이를 내 아이처럼 돌봐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여 논란 적이 있다. 우리 애가 이웃에 놀러 갔을 때 그 이웃에서 자기 아이처럼 잘 돌봐줬는데 이웃의 아이를 내가 왜 똑같이 잘 대해 주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게 협동주택이라고 여긴 모양이다. 어안이 병병했다. 내 아이는 다 자라서 세심하게 보살피지 않아도 되고 그 집 아이는 어려서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다. 그 집 부부가 영화 보러 가고 싶다고 나한테 맡기려고 하는데 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내 의사를 분명히 말했다. 소통이란 게 좋은 일을 나누는 것도 행복하지만 좋지 않은 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는 처음에 와서 너무 많이 놀아서 코피가 나고 엄청 피곤해 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친구가 놀자고 왔을 때, '나 지금 놀고 싶지 않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더라.*

*우리 마을을 위해 단체 시위가 필요한 때가 있었는데 건물이 같은 데서 사니까 소통이 훨씬 편하다.*

넷째 범주 소통의 느낌이다.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어 좋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그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소통의 힘을 느낀다고 했다.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요구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 끄꿍 앓지 않고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지 또박또박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서로 원하는 바를 얻고 원하지 않는 바를 거절하는 소통의

힘이다. 그리고 마을에 공동으로 해가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서로 소통하여 단체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성미산의 개발을 막아 내기도 했다. 이런 경험은 또다시 협동주택 거주자들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소통의 힘은 아이들도 스스로 익히게 된 중요한 범주다.

### 범주 5. 성장 발전의 느낌

*소행주의 경험을 다른 지역사회에 나누어줄 수 있을 때 성장을 느낀다.*

*무언가를 생각해서 이뤄내는 일련의 과정에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느낀다.*

*우리가 만든 소행주에서 태어난 아기 돌잔치를 할 때 아기가 성장하듯, 이웃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였다.*

*돌아볼 때 모든 과정이 뿌듯하다.*

*집이 다 붙어있으니 아이들끼리 잘 어울려 지내며 성장하는 것 같다.*

*부부사이드 협동주택에서의 싸움이 아이들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덜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익히며 성숙해지는 것 같다.*

*가족끼리 다들 때 감정적으로 덜 치닫게 된다.*

*우리 협동주택에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있어서 더 성숙해 간다고 느낀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자주 만나 그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느낀다.*

다섯째 범주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이다. 참여자 2는 과거에 무척 소극적이고 자기 의견을 펼치지 못하는 유형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

람들이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을 돕는다. 소행주를 마련하느라 체험한 경험을 다른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을 도와 주는 일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변화, 성장하였다고 뿌듯해 하였다. 이 범주는 아이들을 통해서도 느낌이 강화되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지금 사는 협동주택에서 태어난 아기의 돌잔치를 할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건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다. 협동주택에 살기 때문에 느끼는 특별한 친밀감이 성장의 느낌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유치원을 다니던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며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도 성장한다고 여겼다.

부부간에도 성장의 경험을 한다고 했다. 협동주택에서는 아이들이 다른 집의 아이들과 교류를 자주 하기 때문에 부부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다툼도 아이들을 통해 소문이 난다. 처음에는 이게 몹시 불편하였으나 관찰자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다툼 때에도 보다 성숙한 모습이 되려고 노력한다. 화가 난 개인을 객관화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보다 이성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애쓴다. 결국 협동주택에서 부부싸움도 개인적인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 범주 6. 위안/치유의 느낌

*이웃을 믿기 때문에 아이를 두고 집을 떠나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심된다.*

*외동인 아이도 외롭지 않게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다.*

*혼자 숨어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 위안이 된다.*

*일이 너무 바빠서 귀가가 매일 늦는 경우에 전에는 아이들과 안 사람에게 미안했다. 지금은 식구들이 이웃사람들과 잘 지내고 나만*

*기다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심이 된다.*

*예전 살던 곳에선 뒷담화가 있었는데 여기 협동주택에선 없다. 과거의 안 좋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다.*

여섯째 범주는 위안/치유의 느낌이다. 이웃을 믿고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위안이 된다고 했다.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귀가하는 것 못지않게 다 큰 아이도 혼자 두고 여행가기가 힘든 일인데 협동주택에서는 그렇게 해도 안심된다고 했다. 외동인 아이도 마치 형제 자매가 많은 것처럼 잘 어울려 놀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했다. 그것이 큰 위안이 된다고 했다.

가장인 경우 전에 다른 집에서 살 때는 늦게 귀가하는 게 가족들에게 미안했는데 여기 협동주택으로 이사 온 뒤로는 자신만 기다리지 않고 즐겁게 살기 때문에 위안이 된다고 했다.

성격적으로 혼자 있는 게 편한 경우, 전에 살던 곳에서는 유난스럽다고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위안 받는다고 했다.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된다고 했다.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고, 혼자 있고 싶을 때 문을 닫아 둘 수 있어서 자신의 성격대로 살 수 있어서 치유됨을 느낀다고 했다.

## 범주 7. 자연과 친한 느낌

*땅이 넉넉하지 않아 자연녹지는 많지 않다. 하지만 생태적 요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지반 녹지라도 가능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다. 생태적 요소는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반 녹지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잘 자란다. 무척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각 층에 인공지반 녹지를 만들어 나무를 심었다. 자라지 않는 층이 두세 층 있지만 만족한다. 옥상 전체에 녹화사업을 했는데*

*갈 때마다 기분이 좋다.*

*녹지만이 생태적 요소는 아니다. 에너지 효율이 중요하다. 따라서 단열이 중요하다. 우리 공동주택은 단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여 단열재를 제대로 썼다. 그래서 난방비가 적게 나온다. 단열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도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나마 늦추려는 노력이니 자연을 위한 조그만 배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자연의 생태요소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태도 중요하다. 우리 공동주택의 경험을 사회 다른 기관이나 모임에게 나눠주어 선순환이 일어나는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일곱째 범주는 자연과 친하다는 생각다. 사실 연구 참여자들이 사는 공동주택인 소행주에 자연기반 녹지는 전혀 없다. 대지면적이 좁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태적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한 주민들은 소행주에 들어와 살기 전부터 생태적 요소를 최대한 활성화하기로 하고 층마다 자투리 공간에 인공기반 녹지를 조성하였다. 그 결과 충분하지는 않아도 초록 잎을 꽤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건물 옥상에 인공기반 녹지를 만들었다. 옥상의 녹지에 텃밭도 만들어 여러 가지 작물을 키우기도 했다. 텃밭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적 요소를 활성화하려고 전 과정에서 노력했고, 그 결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살아난 식물들이 매우 소중한데, 자연과 더욱 가까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 **범주 8. 존중받는 느낌**

*일반 사회였다면 충돌했을만한 가치가 이곳에서는 보호된다.*

*이웃에 내 집을 개방하고 싶지 않을 때는 문을 닫아둔다. 그러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다.*

기존 사회에서 굳어진 가치이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바꿀 수 있어서 좋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1/n 방식이 아니다. 사회에서 보통 짐을 나누는 방식의 1/n보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잘 하는 방법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 내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만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밖에 기여하지 못해도 아무도 욕을 하거나 눈치를 주지 않는다. 그게 내 가치관과 같아서 좋다.

이웃에 나의 모든 것이 공개될까봐 걱정스럽지 않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산다. 그래도 다 존중해 준다.

누군가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한다. 이른 시간에 축구하러 나가는 분이 계신데 신문을 집 앞에 돌려주면 108배하러 더 일찍 일어난 분이 그 일을 따라한다. 선행확산 효과다. 이것은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다.

새 집을 구매하여 이주하기 전에 우리는 빈집 프로젝트를 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것 못지않게 비우는 집에 대해서도 의미를 갖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빈 집을 둘러보고, 기록을 남긴다.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런 게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겠지만 나는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거의 것, 변화의 과정을 남겨두고 의미를 찾는 것이다.

여덟째 범주는 존중받는 느낌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자기 자신이 지키고자 하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참여자 모두 자신이 생각하던 바대로, 아니 오히려 꿈꾸던, 지향하는 바대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서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공평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흔히 쓰는 1/n 방식은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이곳 협동주택에서는 똑같이 지불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고 했다. 능력이 부족하면 조금만 해도 아무도 비난하거나 뒷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또 더 많

이 더 열심히 한다고 했다.

서로 존중하다 보면 선행을 확산시킨다. 어떤 거주자가 좋은 일을 하면 그걸 서로 따라한다는 것이다. 중앙 현관에 배달된 신문을 어느 날에 일찍 일어난 누군가가 각 집 앞에서 가져다 두었더니 그 다음에 더 일찍 일어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먼저 했단다. 이렇게 서로 좋은 영향을 주면서 서로의 가치를 실현해 가고 있단다. 또 그냥 사라져갈 수 있는 사소한 것도 자신들의 역사이니 그걸 프로젝트로 수행한다. 작은 것도 존중하는 가치의 공유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고 한다.

### 범주 9. 나눔의 느낌

*우리는 여기서 많은 것을 나눈다. 물질도 정신도 마음도 나눈다.  
누구네 집에 고구마가 많이 생기면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물어보고 집 앞에 가져다 준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 생협과 카페와 마을극장과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 주민이 출자하여 되살림 가게(재활용 가게)와 유기농 반찬을 파는 반찬가게도 운영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재능을 살려 품앗이로 운영하고 있다.  
집은 반드시 환경을 생각해야 하고, 에너지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환경을 독점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연과도 자원을 나눠 써야 한다.  
이곳에서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집단과 교류하며 나누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아홉째 범주는 나눔이다. 협동주택 거주자들은 친밀도가 높으니 무엇이 생기면 곧잘 나눈다. 성미산 마을 사람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운동하는 찻집과 극장, 반찬가게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서로 나누는 거라고 여긴다. 반찬가게는 반찬을 잘 만드는 소행주의 주민이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돈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반찬 만드는 재능을 마을 사람들에 나눠주는 것이라 여긴다. 모든 걸 나눈다고 여긴다. 심지어 자연자원도 자연과 나눈다고 여긴다.

결론적으로 협동주택에 사는 경험은 사람과의 나눔, 환경과의 나눔이라고 하였다.

## 범주 10. 구속의 느낌

*이웃에서 부부싸움까지 다 알게 되어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부부싸움을 할 적에 아이가 다른 집으로 피신을 하여 그 집에 다 말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다.*

*CCTV가 나를 쫓는 것처럼 답답했다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그 아이 엄마가 다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불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집에 모시지 못하고 멀리 요양원에 모셔서 마음이 무겁다. 소행주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좀 더 큰 집을 살 수 있었을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소행주 외의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했다.*

*기존 마을 사람들이 소형공동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는 것이 불편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뻘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 그래서 배란다 새시도 못하게 하기도 해서 보일러가 언 적이 있다. 항의하고 싶었는데 소행주에 사는 사람을 싸잡아서 욕할까봐 참았다.*

지금까지의 범주는 모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반면 마지막 범주는 구속의 느낌이다. 협동주택은 마을단위보다 더 작은 단위로 더욱 유대가

깊고 매우 밀접하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런 것을 구속이나 속박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했다. 자신의 행동반경이나 행태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금 사는 협동주택이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집에 모실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어머니를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 모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혼자만 즐겁게 사는 게 죄스럽다고도 했다.

협동주택을 둘러싼 다른 이웃과의 갈등도 있다고 했다. 협동주택 거주자들이 재미있게 잘 어울려서 사니까, 주위에 사는 사람들과 정신적인 갈등을 겪는다고 했다. 처음 협동주택을 지을 때부터 주변에 살던 선주민들이 몰려와 꼬치꼬치 따졌다고 한다. 이 마을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건축과정에서도 계속 감시하며 지켜보았다고 했다. 그들과 별로 소통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 맞서지 않아 충돌은 없었다고 했다. 배란다 새시를 하는 것도 현행법으로는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다들 설치하는데 기존 마을 사람들이 따지고 들어서 불편을 겪었다고 했다. 소행주가 집이 아니었으면 맞서 싸웠을 텐데 협동마을 거주자들 단체로 욕 먹을까봐 참았다. 개인보다 단체를 생각하는 게 구속의 느낌도 있지만 저절로 우려나오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성미산 마을 소행주 협동주택 사람들이 경험한 윤리적 소비에 대하여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 대상자가 직접 진술한 윤리적 소비가 무엇인지, 윤리적 소비에 대한 대상자의 심리적 경험은 무엇인

지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하고 그 결과 의미 있는 자료를 찾아 같은 의미군으로 묶어서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10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로 도출된 열 가지 범주 중 아홉 가지는 인간이 추구하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경험이다. 인류가 동굴이나 움집에서 최초의 주거생활을 시작해 점점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집을 발달시켜 온 결과, 단절의 시대, 개인의 시대를 운운하는 때, 협동주택은 마치 미래주택의 모범답안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그것이 윤리적 소비의 결과라는데 더 시사점이 있다. 윤리적 소비의 속성은 타자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 당사자에게로 돌아와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즐겁게, 편하게, 가치 있게, 소통적으로, 발전적으로, 위안이 되게, 자연과 친하게 그리고 나누는 삶으로 만들어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경험인 구속의 느낌은 사실 청소년기의 시기적인 정서와도 맞닿은 면도 있다. 그러므로 협동주택 경험의 결과라고만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부모 부양의 문제도 협동주택에서만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협동주택을 구매한 윤리적 소비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긍정적인 의미로 도출된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택의 구매는 식품이나 옷의 구매와 구매가격의 크기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대상자의 지배적인 가치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품목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생태적 요소를 도입한 협동주택의 구매라는 점이 윤리적 소비가 지향하는 환경의 요소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 이를 선택한 사람들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윤리적 소비에 대한 경험을 생태요소를 도입한 협동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상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10가지 범주의 의미를 도출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대상자 접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구 대상자를 3명으로 한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또한 타당화 과정을 2, 3회기의 면접에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참여자들이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여, 1회기를 하는 대신 면접시간을 길게 하여 각 피면접자에게 구술 내용에 대해 면접자가 요약, 정리하고, 동의 및 부연설명의 과정으로 대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들의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과 그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한 건물의 협동주택에 어울려 사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균질한 대상자로 볼 수 있다. 좀 더 다양한 협동주택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대상자가 참여한다면 보다 풍부한 경험의 의미가 도출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 참고문헌

- 『경실련5주년 자료집』.
- 권미정(2012).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 인식이 윤리적 구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희(2012). “소비자의 비윤리적인 소비 행동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재현(2009). 착한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경태(2007). 『철학: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파주: 들녘.
- 박상용(2012). “공동주택에서의 그린홈 적용에 따른 개선방안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희·김유진(2010). 『윤리적 소비』 서울: 메디치미디어.
- 신승철(2012). 성미산마을 조사연구 보고서. (사)사람과 마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논문.
- 신지옥(2008). “인접 건축물 음영의 영향에 의한 겨울철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분석 및 평가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효진(2012). “윤리적 소비태도 척도 개발 및 소비자의 윤리적 가치관, 지각된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창복(2009). “도시 속 마을공동체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사례연구: 성미산 사람들의 ‘마을하기.’”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람(2012). “지역내 학교 통합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성미산 학교공원 기본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철수 외(2009). 『사회복지학사전』 서울: 블루피쉬.
- 이홍택(2012).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 마을을 사례로.”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윤희(2003). “코하우징의 공동육아환경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채성(2013). “윤리적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윤리적 소비 및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중앙일보(2013). 8월 27일.
- 최윤진(2011). “성미산 마을 아카이빙 체계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민정(2006). “스웨덴과 미국 코하우징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스칸디

- 나비아학회』, 7: 173-204.
- 한상훈(2012). “성미산 마을 연구: 도시에서의 새로운 대안적 삶에 대한 모색.” 국  
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연금, 송기숙(2010). “우리나라 윤리적 소비자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소비문  
화학회』, 13(2): 1-25.
- 홍은실, 신호연(2010). “대학생 소비자의 윤리적 소비와 관련변인 : 교육경험변인  
과 심리적 변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5):  
131-149.
- 국가법령정보센터(201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www.law.go.kr).
- 사회복지법인 즈믄혜 중앙도서관(2013). “현상학적 접근방법.” (www.bokjeein.kr)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2013). “윤리적 소비란.” (www.icoop.or.kr)
- 국립국어원(2013). “표준국어대사전.” (www.stdweb2.korean.go.kr)
- 한겨레뉴스(2013). “건강에서 환경, 이젠 사회로 진화하는 착한 소비.” (www.hani.co.kr)
-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  
칙.” (www.gbc.re.kr)
- Colaizzi, Paul(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Ronald  
S. Valle & Mark King(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swell, John(2010).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외(공역). 서울: 학지사;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s Angeles: SAGE  
Publication, 2006.
- Harper, Gemma and Aikaterin Makatouni(2002). “Consumer perception of organic food  
production and farm animal welfare.” *British Food Journal*, 104(3-5): 287-99.
- McCaman, Kathryn and Charles Durett(1994). *Cobousing*. Berkeley: Ten Speed Press,  
Mintel International Group(1994). *The Green Consumer*. London: Mintel Research.
- Munch, James and Scott Vitell(1992). “Consumer ethics: An investigation of the ethical  
beliefs of the final consumer.”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8(2): 188-209.
- Walker, Liz(2006). 『이타카 에코빌리지: 자연과 문명이 조화를 이룬 생태마을』, 이  
경아(역). 서울: 황소걸음; *EcoVillage at Ithaca: Pioneering a Sustainable Culture*.  
Gabriola Island: New Society Publishers, 2005.

**Abstract**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ecological cooperative housing residents as ethical consumers

Nahyun Kwon

This is a study to understand the purchase experience of people who live in ecological cooperative housing by the qualitative method of phenomenological study. Three subjects were interviewed in order to explore experiences of ecological cooperative housing and the meaning of the ethical consumption to the subjects. The interviews took place during Aug. 3 to 10, 2013. Each interview took 60~90 minutes each, including the validation process of repeating each question and asking the subjects' consent on their answer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by the mobile phone and transcribed with the computer word program. Repeated reading and extracting meaningful statements were done to develop themes on the subjects' experiences of ethical consumption by the Colaizzi's method of the phenomenological study. The themes are: happy experiences, daily pleasures, convenience, feelings of communication, feelings of growth and development, feelings of consolation and healing, feelings of being eco-friendly, feelings of being respected, feelings of sharing, and feelings of being restricted.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was only a small number of subjects. It is suggested to repeat the study with more subjects.

Key Words: Ethical Consumption, Cooperative Housing, Ecological Cooperative Housing, Fair Trade, Phenomenological Study